

동요, 어른이 부르고 어린이가 심사

동요는
기쁘고 즐겁게 불러야
울동 잘 했고
소품 잘 준비했어요
역할 바꾸니
신기하고 재밌어요



진지하게 심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어른이 부르는 동요대회 꼬마 심사위원들.

주근깨 분장도 했어요
동심을 다시 찾아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50년 전 엄마가
불러준 자장이 부르니
눈물이 다 나네요



제1회 어른이 부르는 동요대회에 참가한 차대연, 윤희, 이명숙(왼쪽부터)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양림역사문화작은도서관 제공>

광주 양림역사문화작은도서관 '어른이 부르는 동요대회'

엄마·아빠·할머니 등 31개 팀 참가 울동하며 열띤 경연

참여자 순위 정하지 않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세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크게 입을 벌려 동요 ‘우산’을 부르는 이명숙(68)씨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페이스 페인팅도 했다.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TV에서 ‘말괄량이 삤삤’가 유행이었어요.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는데 발달하고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의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분장도 했습니다. 효령복지타운에 다니는데 그곳에서 예행연습도 했지요.(웃음) 어른들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났어요. 동심을 다시 찾아준 주최측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날 어머니 이명숙씨의 참가를 권유했던 머느리 권미경씨는 3년간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며 고생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울적해졌다고 했다. “제1회 어른이 부르는 동요대회”가 지난 21일 광주 양림커뮤니티 센터 내 양

심역사문화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도서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사)한국그림책 문화협회가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어른이 노래하고, 어린이가 심사하는 행사였다. 노마숙 대표는 ‘늘 평가만 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행사를 기획했다. “아이들은 늘 점수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에 주눅 들어 있구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어른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모두 31개 팀이 참여했다. 12살 늦둥이 딸에게 엄마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도 있었고, 동요대회에 나갔던 기억을 더듬어 참여

한 이도 있었다. 어떤 참가자는 어릴적 했던 울동을 그대로 하며 ‘동근해가 땀 습니다’를 불렀다. “엄마가 불러주었던 자장이”였다는 ‘섬집아기’를 부를 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50년 전,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겠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꽃밭에서’, ‘과수원길’, ‘겨울나무’, ‘기차길옆’, ‘노을’ 등 각각의 사연이 담긴 노래가 불려졌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고, 중간에 틀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노래했다. ‘꼬마 심사위원’으로는 화순제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문현진(6년), 최가온(4년), 최한결(2년)군이 참여했다. 경연 전 세 명의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실래요”라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사람”이라 답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각 참가자의 심사평을 작성했다. ‘용기 있게 잘 불렀다’, ‘울동을 잘했고, 소품을 잘 준비했다’, ‘밝은 미소로 불렀다’, ‘즐거운 목소리로 불렀다’, ‘신난다’ 등 평가가 나왔다. 심사평을 발표한 최가온양은 “원래는 어린이가 노래해야하는데 역할이 바뀌어서 신기했다”며 “심사를 해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하는 지도 알게 돼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동요가 너무 잊혀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판만 그냥 벌였을 뿐인데 모두들 잘 노시더라고요. 젊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모두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동요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많은 이들이 있고 지낸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감동이었던 듯합니다. 방정신 분들도 내년에는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는 취지에 맞게 순위를 정하지 않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내년에는 참가비를 모아 그림책을 구입해, 책이 필요한 곳에 기부, ‘함께 나누는 삶’도 실천할 계획이다. 문의 010-5631-72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61회 호남예술제 실용음악 입상자 명단

- | | | |
|--|--|---|
| <p><심사위원>
배창희(남부대 교수)
이용호(초당대 교수)</p> <p>◇보컬 고등부 1.2
▲금상
2 이예지(동아여고2)
▲동상
1 김명은(광주수피아여고1)
◇보컬 고등부 3
▲금상
1 정선진(남양고3)
▲은상
2 양정렬(담양고3)
◇통기타 초등부
▲금상
1 정하은(신창초6)
▲동상
2 김래현(광주송원초5)
4 조정원(광주송원초5)
◇금상
1 신명서(동아여자중3)</p> | <p>◇통기타 고등부
▲은상
1 오창성(20000327)
◇클래식 기타 초등부 3.4
▲은상
1 김지혜(광주송원초4)
▲동상
2 김현우(광주송원초4)
◇클래식 기타 초등부 5.6
▲금상
5 서현서(광주송원초6)
6 유현욱(광주송원초6)
▲은상
3 임재영(광주송원초6)
▲동상
1 고나영(광주송원초5)
2 김래현(광주송원초6)
4 조정원(광주송원초5)
◇일렉 기타 고등부
▲금상</p> | <p>1 이기현(광주제일고2)
◇색소폰 초등부
▲금상
1 은재영(의도초4)
◇드럼 초등부 1.2
▲은상
1 김담연(광주수원초2)
◇드럼 초등부 5.6
▲금상
1 김세윤(전주온빛초6)
▲은상
2 채병훈(광주송원초5)
◇드럼 중등부
▲은상
1 김민호(광덕중1)</p>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다큐 영화 '서둘러 천천히' 상영·감독과의 대화

인문학연구소 25일

광주폴리 II '광주천 독서실'



한영애 감독

인문학교육연구소(소장 양진호)가 25일 오후 7시 광주폴리 II '광주천 독서실'에서 '영화 야외상영+감독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큐멘터리 '서둘러 천천히' 상영과 함께 영화를 제작한 현영애 감독을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영화는 밴드 '아나킨 프로젝트'(마승길·홍사인·조운석)와 현 감독이 덴마크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열리는 여름축제에 참여해 음악과 예술이 갖는 공동체 역할과 의미를 찾는 여정을 다뤘다. 40년 전 생긴 크리스티아니아는 자유도시로 불리며 전원 합의제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한다.

독자적인 화제를 사용하고 마약(대마초) 매매도 이뤄지는 등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멤버들은 크리스티아니아 여정을 통해 접하고 있는 영광 '생명 평화 운동', '생태주거 프로젝트'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한다. 현 감독은 참여자들과 문화예술로 바라본 공동체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인문학교육연구소는 앞으로도 '광주천 독서실'에서 '하천생태교실', '시창작 교실', '공예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시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70-8862-60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역사박물관 구축사업 장소·규모·주제 등 미흡"

호남사학회 등 지적

지역 학계, 시민·문화단체가 광주역사박물관 구축사업에 대해 장소·규모·주제 등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호남사학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 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등 네 단체는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개제안서를 보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공개제안서에서 네 단체는 "광주역사관이 들어설 장소와 규모·전시주제와 콘텐츠·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사업 문제점으로 ▲시립민

속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한 구축 방식 ▲전시 콘텐츠 일관성 부재 ▲의향·예향 도시 정체성 투영 미흡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장소 재검토, 이야기 중심 전시, 홍보마케팅 부서 관련 전문 인력 충원, 다양한 시민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공통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지역민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광주시·전문가·시민문화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감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